

中韩太阳

神話

比较研究

姜承哲 著



黑龙江人民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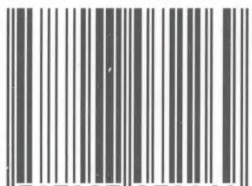
中韩
太阳

神話

比较
研究

责任编辑:孙国志
装帧设计:吴明强

ISBN 7-207-07226-0



9 787207 072269 >

ISBN 7-207-07226-0/G·1709

定价: 20.00 元

中韩太阳

神話

比较研究

姜承哲 著



黑龙江人民出版社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中韩太阳神话比较研究/姜承哲著. —哈尔滨:黑龙江人民出版社,
2006. 12

ISBN 7 - 207 - 07226 - 0

I. 中... II. 姜... III. 神话—对比研究—中国
韩国—古代 IV. B932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6)第 149333 号

责任编辑:孙国志

装帧设计:吴明强

中韩太阳神话比较研究

姜承哲 著

出版者 黑龙江人民出版社出版发行

通讯地址 哈尔滨市南岗区宣庆小区 1 号楼

邮 编 150008

网 址 www.longpress.com E-mail hljrmcbs@yeah.net

印 刷 哈尔滨太平洋彩印有限公司

开 本 880 × 1230 毫米 1/32 · 印张 9

字 数 220 千

印 数 1 - 1500

版 次 2006 年 12 月第 1 版 2006 年 12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7 - 207 - 07226 - 0/G · 1709

定价: 20.00 元

(如发现本书有印刷质量问题,印刷厂负责调换)



序

承哲是韩国人,却十分喜爱中国文化。从1998年来哈尔滨,他在中国整整学习生活了八年,八年过后,他已经深深融入中国,融入中国文化,他不仅说一口流利的普通话,甚至能说出地道的东北土语,即使举手投足间也很难让人感觉到他是一个外国人。而他真正的进步是学术的,他熟悉中国古代典籍,了解中国当代学术发展状况,已远不是一般中国人所能达到的。虽然中韩之间山水相依,地域相连,从韩国到中国空中航程只需一个多小时的时间,但是要真正实现文化的深层对话却不是一件轻而易举的事情。在读博士的三年里他很少回国,大部分时间都用于读书写作、查找资料,所以他的博士论文,很顺利地就通过了,并得到了有关专家的好评,这反映出他的学术进步,也表现出他的自信和顽强、执着与勤奋的精神。

天下的水都是相通的,所有的文化都存在着深刻的内在联系。承哲凭借着异民族的文化角色的优势,从“旁观者”的角度,审视中国文化,其目光是新异的、惊奇的,有些见解往往跳出了“不识庐山真面目,只缘身在此山中”的束缚与局限。承哲善于发挥自己的专长,他的硕士论文与博士论文都选择了比较的题目。他的博士论文题目是“中国太阳英雄神话与韩国檀君、朱蒙神话的分析”,中国早期文化中有后羿、河伯等太阳和英雄神话,而在韩国也有檀君、朱蒙的神话系统,但是作者不仅仅满足于简单的现象的对比,而是深入文化的深层结构,挖掘文化现象形成的深刻意蕴。作者在描述了“后羿神话对韩国神话



之影响”“韩国神话继承太阳神思想”“檀君、朱蒙神话的叙述构造”等文化现象之后,笔锋却转向“文化位相”的探讨,探索骑马民族与骑马文化的融合、稻作文化与卵生神话的关系以及神话系统中圣俗二元性因素和神权统治理念的形成,我觉得这部分的讨论更有意味、更具启发性。比较是艰难的,作者之所以不避艰难,有所发现,有所建树,得益于资料的丰富和理论视野的开阔。

文化的陌生往往带来民族间的阻隔与误解。我从小生活在长白山区,河的对岸就是一个纯粹朝鲜族居住的村庄。他们操持着我们完全听不懂的语言,他们靠种植水稻为生,喜吃辣椒。朝鲜族的男人们白衣青裤,常常看到他们田埂上背负背篓,抛撒稻秧,或在乡间土路上,赶着椎轮式的牛车默默行进,而每当酒酣耳热之际,便翩翩起舞,彻夜长歌。朝鲜族的女人们勤劳善良,头上经常顶着陶制的水罐,到河里汲水,她们喜欢色彩鲜艳的长裙,后来读了《陌上桑》,看到罗敷“缃绮为下裙,紫绮为上襦”的装束,才知道那紫色短衣、杏黄长裙的服饰就是朝鲜族妇女日常的衣饰。在童年的记忆里,他们是神秘的、陌生的,而由于陌生往往有些惊惧。不过在我的印象里,所有的朝鲜族都过着这样古朴而诗意的生活。后来去了首尔,才发现随着现代化的进程,到处是车水马龙一派繁荣的景象,不知远处的深山乡村里是否还保留着这种古朴而浪漫的生活场景?

毕业后,承哲留在了哈尔滨,为来华的韩国留学生教授汉语,也为学习韩语的中国学生教授韩语,他做的是文化交流与沟通的工作。不过他说总还是要回到祖国去,不仅由于那里有他的故乡和亲人,也因为他乐于承担文化交流的使命。

傅道彬

2006年12月1日



前 言

同所有学术研究一样,神话研究也需要保证所掌握资料的实际性,以选择适当的研究对象和切入点。诸多学者因其关心角度和切入点的不同而提出了多种多样的神话定义和研究观点。这些不同种类的定义或不同研究视点的存在也许是因为学者们在学术上关心角度之差异,或者各地域、各民族本身传承的资料特点各异而产生了不同的研究境域所致。因此,研究中国神话时要求有符合中国神话自身特点的研究观点。同样,进行韩国神话研究也应如此。这样研究出来的结果可能有与其他民族的神话有一致的,也有不一致的。所以很有可能世界上公认的研究理论在某些方面并不一定适合中国或韩国神话的性质,也有可能有些已被认为陈旧的理论或许在神话解释上十分有用。于是本书将分成两个大单元:一是,中国神话方面采取以丰富的中国文化里的神话、民俗研究材料为主,加上站在外国人的角度论述中国神话的叙事构造来研究;二是,从韩国神话里抽出普及文化属性以及通过普遍文化研究成果来把握一般论态度,把韩国文化圈分类,并利用其中的个别文化状态研究相对论述。

一、中国研究神话状况

在中国本来没有神话的名称,以前专门研究神话的学者也不



多。而且虽然中国神话的文献数量和内容简直多至惊人,可是传到后代时却不被重视而且遗失甚多。相反,欧洲的一些神话、民俗学者们从文化人类学、语言学、社会学的角度来研究中国神话给学术界作出了不少贡献。在东方日本是研究神话最早的国家,不过近年来,在中国以许多年轻学者为中心用多样的方法展开了研究活动。在中国最早把神话单独隔离出来并赋之以明确定位的是鲁迅的《中国小说史略·神话与传说》中提出“小说的根本”之后,1928年茅盾出版了《中国神话ABC》,这是中国最早专门研究神话的著作,从些开始中国神话研究几乎每天都有新的研究成果产生。闻一多的《神话与诗》,袁珂《中国古代神话》《古神话选释》《中国神话传说词典》《中国神话史》,杜而未《昆仑文化与不死观念》《风麟龟龙考释》《中国古代宗教系统》等成为神话研究初期比较有深度的著作。另外,王孝廉《中国的神话与传说》《神话与小说》,黄之岗《中国的水神》,丁山《中国古代宗教与神话考》,王彬《神话学入门》、陶阳、牟钟秀《中国创世神话》《中国神话》,谭达选《中国神话研究》等著作中许多研究结果令人注目。中国大多数的神话学者们追求把神话作为历史事实的原始表现或反映为主题的人类学派的主张,其学派的主要概念是把神话本质解释为物理现象和宗教现象,找出神话产生背景,并从产生神话时代的生活环境中找出其根源。

二、韩国研究神话状况

韩国的神话研究是在日本侵略朝鲜时期由日本人开始的,1894年在日本出版的《史学杂志》上发表了关于檀君的神话,这些日本学者以今西龙为代表人物,如1910年他发表了《檀君传说考》一文,但这些日本学者都按照侵略主义的殖民思想来故意贬



低韩国神话。之后,1926年由崔南善按民族主义精神开始研究韩国神话。不过那时候的研究都是有政治、侵略、民族主义目的性的,很难看成是真正的专门神话研究,用科学的方法和从整体上系统进行研究是到了20世纪30年代才有所进步。三品彰英强调应从文化人类学的文化圈理论或文化史方面来比较韩日神话,关心神话要素的文化圈移动的主张在1931年发表的《脱解传说考》上。但是,韩国神话研究学者们都认为20世纪30年代申采浩的《朝鲜上古史》为研究韩国神话的真正开端。1945年以后有崔南善《檀君古记笺释》、金载元《檀君神话新研究》、金廷鹤《韩国神话的科学考察》、从文学方面入手的张寿根《韩国神话》、以民俗学为主题的金泰坤《从巫俗上看檀君神话》、成顺泽《檀君神话的民俗学考察》,然后到了金在鹏《卵生神话分布圈》、朴时仁《韩国上古说话研究》、柳东植《从神话和仪礼上看古代韩国人的信仰体系》等著作开创了神话研究的新领域。金烈圭在韩国神话研究上成就是别人难以替代的,如《韩国的神话》《神话·传说》《韩国神话与巫俗研究》《韩国神话与文学研究》等,他试图用多样的方法论来研究神话。还有比较文学方面的玄容骏《韩日神话比较》。经过以上的发展,韩国的神话研究具有了一定的规模。

1945年以后中韩两国因不同的社会制度而断交了四十多年,从1992年开始又有交往以后到今年已经是第十五个年头了。自古代起两国就有着密切的邦交,除了汉、隋、唐朝等少数几次发生过战争以外,一直都保持着友好的关系。明朝年间日本侵略朝鲜时中国曾派兵援助过,二战时与朝鲜联合起来共同抗击过日本等,自古以来,韩国就是从中国身上吸收到大量的先进发达文化、文明而发展起来的国家。随着两个国家关系的日益密切,无论是在官方上,还是民间都有延续不断的交流,直至现在,不管在经贸、军事、地理、历史上还是在学术上都是十分密切、不可割裂的,但这两个国家之间在比较文学研究方面几乎处于空白状态。虽然在学术



某些方面上也有过比较,但可以肯定地说,在神话研究方面几乎找不出什么资料来。这里有两个原因:其一,比较文学本身之艰难。进行比较必须是多个角度的,而要比两个国家的神话就必需从哲学上、宗教上、民间信仰上等多个方面着手,涉及面太过广阔,需要比一般的比较文学更多的力量投入。其二,缺乏了解两个国家之间的不同文化背景。这里涉及到不同国家的文化背景、语言知识,不仅需要熟悉两国语言、文化的研究人员,还需要在两个不同的国家里进行资料的搜集和对比,这使对比研究更加有难度。研究两国家神话固然很重要,可是更重要的是比较两国家神话的比较意义。通过比较不仅可以更深层次地发掘中韩两国的文化渊源,还可以进一步增强彼此的了解以及文化上的交流,况且这种比较还填补了中韩两国在神话比较方面的空白。经过这样比较以后,更加能够得出两国民族的心理比较问题的异同。有一点必须明确,本书旨在对古代神话传说时期的北方民族的太阳神图腾崇拜思想方面追随北方民族的源流和移动以及神话的传播以进行文化层面上的研究,而无任何政治影射。总之,中韩神话的对比研究工作必定有利于两国在学术方面的交流、合作与发展。



머 리 말

모든 학술 연구가 다 그러하겠지만 신화연구에서도 자료의 실질성을 얼마나 장악하느냐, 합당한 연구대상의 선택과 어떠한 연구 각도도 필요하다.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갖는 각도와 연구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의 신화에 대한 정의와 연구 관점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각기 다른 정의와 다른 연구 시점이 존재하게 되는 것에는 아마도 학자들의 학술상 관심을 갖는 관점과 관심이 각기 다른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중국신화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국신화 자체의 특징에 맞는 연구를 하는게 필요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한국신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각기 자신 민족에 맞는 연구를 해야하는데 결과는 다른 민족의 신화와 일치되는 부분도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나오게 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연구이론이 어떤 부분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신화에 적합할 수도 있고, 또는 이미 도래된 이론이지만 신화해석에서 오히려 더 부합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전개를 할려고 한다. 첫 째로, 중국신화방면에서 풍부한 중국문화 안에 있는 신화와 민속연구를 주 재료로 하여 차국인의 입장에서 바라 본 시각으로 중국신화의 서술적 구조연구를 할 까 한다. 두 번째로, 한국신화에서 문화속성의 보급과 문화의 보편 연구결과를 통하여 일반론 태도를 가지고 한국문화권의 분류, 이용하여 개별문화상대를 상대론적 개념으로 평가해 본다.

1. 중국신화 연구 상황

중국에서 본래는 신화라는 명칭은 없었기에 이전엔 전문적으로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도 드물었고, 또한 중국신화가 비록 방대한 내용과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있지만 후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숫자는 그다지 많지가 않다. 이와는 반대로 유럽의 일부 신화는 민속학자들의 문화인류학적, 언어학적, 사회학 등의 관점으로 중국신화를 연구하여 적잖은 연구실적을 내 놓았다. 동양에서는 일본이 가장 먼저 신화연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수 많은 젊은 학자들 중심으로 여러방법을 통하여 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신화를 단독으로 떼어내서 정의를 부여한 것은 노순의 <중국소설사략>제 2편, 신화와 소설편에서 “소설의



근본"이라 명명한 후였다. 그 후 전문적으로 신화를 연구한 것은 1928년 출판된 모순의 <신화연구 ABC>를 시작으로 중국신화 연구는 매일 새로운 성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었다. 문일다의 <신화와 시>, 원가의 <중국 고대 신화>, <고신화선석>, <중국 신화전설 사전>, <중국신화사>, 두이말의 <근원문화와 불사관념>, <풍린구용고석>, <중국 고대종교 계통> 등 신화연구 초기에 비교적 심도있는 저서들이 나왔다. 그리고 왕효림의 <중국신화와 전설>, <신화와 소설>, 황지강의 <중국의 수신>, 정산의 <중국 고대종교와 신화고>, 왕빈의 <신화학 입문>, 도양중수의 <중국 창세신화>, <중국신화>, 담달선의 <중국신화연구> 등의 저서들의 연구결과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중국의 대부분 신화학자들은 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하는 원시적 표현과 인류에 반영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인류학파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이 학파의 주요 관념은 신화의 본질에 대한 해석을 물리현상과 종교현상으로 하고 신화 생성의 배경을 신화 생성시대의 생활환경 중에서 그 근원을 찾고자 한다.

2. 한국신화 연구의 상황

한국의 신화연구는 일본의 침략시기에 일본인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1894년 일본에서 출간된 <사학잡지>에 단군신화에 대한 문장이 발표되고 나서였다. 西龍을 위주로 1910년 발표한 논문 <단군전설고>는 당시 일본인들의 침략주의의 식민사상으로 고의로 한국신화를 폄하하였다. 그 후 1926년 유당 리남선 선생의 민족주의 정신으로 한국신화를 연구하게 되었지만, 당시의 연구는 모두 정치적, 침략적, 민족주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전문적으로 신화를 연구 했다고는 보기가 어렵다.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체 계통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30년 대에 들어서 비로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의 연구로 한국신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해방 후에 최남선의 <단국고기 전석>, 김재원의 <단군신화 신 연구>, 김정학의 <한국신화의 과학적 고찰>, 문학방면으로 연구를 한 장수근의 <한국신화>, 민속학적 주제로 연구 한 김태곤의 <무속학으로 본 단군신화>, 성순택의 <단군신화의 민속학적 고찰>, 그리고 김재봉의 <난생신화 본포권>, 박시인의 <한국상고 설화연구>, 박동식의 <신화와 예의에서 본 고대한국인의 신앙체계> 이후 신화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펼쳐게 되었다. 김영규의 한국신화에 대한 연구실적은 대단한 것으로 <한국의 신화>, <신화와 전설>,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한국신화와 문학연구>를



통하여 그는 다양한 방법론적으로 신화를 연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비교문학 방면으로 현용준의 <한일신화 비교>가 있다. 이들의 발전으로 한국신화 연구는 제대로 된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해방 이후 중·한 양국은 서로 다른 사회체계를 갖게되어 40여 년이나 단교하였다. 92년 국교를 정상화 한 후 지금까지 겨우 13년에 그치고 있다. 고대에서부터 시작하여 양국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한·수, 당대를 제외하곤 전쟁없이 우호적 관계를 맺어 왔었다. 명나라 때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고대로부터 양국은 밀접한 관계에서 정부차원에서든, 민간차원에서든 계속된 활발한 교류를 하였고, 무역, 군사, 지리, 역사 그리고 학술상 때어낼 래야 때어낼 수가 없는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양국 간의 비교문학 방면에는 거의 공백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비록 학술상 어떤 부분에서는 비교연구가 있었기는 하지만, 신화연구 방면에서는 그 자료를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째로, 비교문학 자체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비교를 진행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각도가 필요하며 양국의 신화를 비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학적, 종교적, 민간신앙 등의 여러 방면에 입각하여 연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일반적인 비교문학 보다도 더욱 많은 대량의 시간적, 물질적 투자가 필요하다. 둘 째로, 양국 간의 서로 다른 문화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서로 다른 국가의 문화배경, 언어에 관한 지식이 섭렵되 기에 양국 언어에 능통 해야 할 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연구인원, 그리고 양국의 서로 다른 자료를 수집, 비교하는 작업 등이 연구에 있어 어려움을 더 하기 때문이다. 양국의 신화를 연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양국의 신화를 비교한 다는 자체에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비교를 통하여 더욱 심오한 사상을 발굴해 내고 양국의 공백 상태에 놓인 신화연구 방면에 보충을 하고자 하는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양국민의 심리비교 문제에서 무엇이 다른가를 찾고자 한다. 본 논문은 고대신화, 전설 시대의 래양신 숭배사상 로데미즘 방면과 북방민족의 원류와 이동, 그리고 신화의 전래에 따른 문화의 다층적 연구에 초점을 갖었고 어떠한 정치적 성격을 띠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종합하자면, 한·중 양국의 비교연구 작업이 반드시 양국의 학술상 교류와 협력과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되어야 한다.



目 录

前言 (머릿말)	(1)
第一章 神话的文学意义	(1)
第一节 神话的本质与文学的意味	(1)
一、神话的本质	(1)
二、神话与文学	(10)
三、文学史上的神话	(16)
四、神话文学的境界	(19)
第二节 韩国神话文学的传统	(22)
一、和请的本质	(22)
二、中、韩、日佛教传播后神话文学的演变	(25)
三、和请对韩国文学的贡献	(35)
第三节 中国神话的特点	(38)
一、中国神话学者的神话定义	(38)
二、中国神话的特点	(42)
三、神话、传说和民谭之区别	(46)
第二章 后羿神话对韩国神话之影响	(54)
第一节 后羿神话	(54)
一、羿神话的发生地	(56)



二、羿神话的演变过程	(62)
第二节 河伯神话	(74)
一、河伯神话的起源	(74)
二、河伯神话的演变过程	(78)
三、河伯与冯夷	(84)
第三节 东明王神话中太阳神与水神的相互关系	(87)
一、解慕漱神话	(91)
二、朱蒙神话	(97)
三、佛教神话中出现的高僧与龙的相互关系	(101)
第三章 韩国神话继承的太阳神思想	(111)
第一节 韩国神话的一般模式	(111)
一、结婚与出生的展开顺序	(113)
二、即位过程	(116)
三、死后异迹	(118)
第三节 扶馀东明王神话与檀君、朱蒙的关系	(119)
一、东北英雄神话的相互关系	(119)
二、扶馀《东明神话》与高句丽《朱蒙神话》关系	(125)
三、檀君神话的辩证法文学意味	(128)
第三节 朱蒙神话的神圣指向	(132)
一、见于朱蒙神话中的檀君正统意识	(132)
二、神圣指向	(135)
三、中国文献中的朱蒙神话	(138)
第四节 檀君、朱蒙神话的叙事构造	(141)
一、檀君神话的叙事构造	(141)
二、朱蒙神话的叙事构造	(148)



第五节 关于檀君神话中出现的“三符印”	(153)
一、三个天符印与青铜器	(153)
二、“鼓”是否为三符印之一	(157)
第四章 文化史上的位相	(165)
第一节 骑马民族与骑马文化的融合	(165)
一、骑马民族的动迁和朱蒙神话的形成	(166)
二、骑马文化的普及	(170)
第二节 中国文化的传播与融合	(173)
一、稻作文化与卵生神话素的关系	(174)
二、圣、俗的二元化	(178)
三、神权统治理念	(181)
结 语	(187)
附录：中国《剪灯新话》与韩国《金鳌新话》的比较	(194)
前 言	(194)
第一节 《金鳌新话》的源泉《剪灯新话》	(196)
一、《剪灯新话》在韩国文学史上的地位	(196)
二、《剪灯新话》的源泉作用	(199)
第二节 韩国古典小说之祖《金鳌新话》	(204)
一、以主气论的世界认识——从一理论至一气论	(205)
二、精气已散说	(206)
第三节 《剪灯新话》与《金鳌新话》的作品比较	(208)
一、《滕穆醉游聚景园记》与《万福寺携簿记》	(208)
二、《翠翠传》与《李生窥墙传》	(215)
三、《鉴湖夜泛记》与《醉游浮碧亭记》	(224)



第四节 上述小说中的梅月堂思想	(234)
一、据因缘说构想爱情的实验——《万福寺擣蒲记》	(235)
二、为了克服人的限界的爱情美学——《李生窥墙传》	(240)
三、通过超越性体验对历史的主体性认识——《醉游浮 碧亭记》	(246)
结 语	(252)
主要参考资料	(254)
后 记	(270)
专家评语	(272)